

제8강 공자의 사상 I

(1교시)

◆논어論語의 구성과 논어 강독 1

※학습목표: 논어를 바르게 읽으며, 그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을 접해본다.

▲논어의 구성과 특징

-논어는 다른 책들과 다르게 그 편의 주제를 제목으로 삼지 않는다. 그 편의 맨 앞의 두 글자를 제목으로 둔다. 이것은 **논어라는 책이 일정한 편집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즉 공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님은 물론이요, 나중에 편집된 것이다.

-학이편은 누구나 아는 문장이다. 공자 젊은 시절의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공자가 말기에 회고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아마도 표현으로 보아서 노숙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學學, 예禮, 시時

-학이란 말은 원래 있었던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의미는 공자를 통해서 모양새를 갖춘다. 본래 학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은 史와 巫이다. 여기서의 史는 국가 권력의 것이고, 巫는 점치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후 오는 것이 6예이다. 예는 잘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를 익히는 것은 귀족계급의 특권이다. 육예는 **예·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이다.

⇒예는 본래 지배층의 피지배층 억압제이다. 그러나 공자는 예를 사람과 사람이 맺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관계로 재해석한다. 이때 바탕이 되는 것이 인仁이다. 악은 지금이 art와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예악은 인문+정치이다. 사어는 활쏘기와 말달리기이며, 서수는 실용적 지식이다. 정리해보면 예악은 형이상학적·원리적 교육, 사어는 신체교육, 서수는 실용교육이다.

-時는 '때때로'가 아니라, '**때 에 맞추어**'이다. 그러므로 '배워서 때에 맞추어서'라고 해석해야 옳다. 쫓은 '익힌다'란 뜻과 '**실천하다**'라는 뜻이 있다.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를 합하면, '평소에 배워 놓았다가 자기가 배운 것을 실천해 옮길 수 있을 때를 맞추어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時中이라 한다.

(2교시)

◆논어論語의 구성과 논어 강독 2

※학습목표: 논어를 바르게 읽으며, 그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을 접해본다.

▲연역적 사고와 시중時中

과학적 사고·연역적 사고는 보편성, 필연성, 영원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時中은 이와 정확히 반대다. 연역적 사고가 봄의 사유라면 시중은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유이다. 변화를 따라가면서 어떤 가장 적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之는 의미가 없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배운 그 내용’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배워서 때가 오면 그것을 실천하니 과연 기쁘지 아니한가?

▲그 먼 곳에서 조차도 찾아오니 과연 즐겁지 아니한가

-有朋 自遠方來 不亦樂乎(유봉 자원방래 불여낙호)

-有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there is'이다. 이럴 때 ‘친구가 있어’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anyone’이다. ‘어떤 친구든’으로 번역된다.

-朋은 보통 친구가 아니다. 보통의 친구는 우友를 쓴다. 朋은 동지를 말한다.

▲ 공자의 삶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인부지이불은 불역군장호)

-人을 ‘사람’으로 번역하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이고, ‘귀족’으로 번역하면 ‘귀족이 나를 써주지 않아도’라는 뜻이 된다.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후자가 맞을 듯하지만, 공자가 만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전자가 더 부드럽다.

-慍은 분노를 품는 것으로 화를 내는 것과 다르다. 화를 참는 것보다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 정도가 되어야 군자다.

-不知는 춘추전국시대의 한평생 동안 시대를 바로 하려는 공자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넓은 의미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패했음을 말한다. 그래서 공자의 삶 전체를 다룬 장이다.